

전문연구도서관의 사서 C형에게 드리는 서신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이나 전문연구도서관에서 활약하고 인정받는 전문직 사서로서의 위상을 획득할 수 있는 영광의 그날까지 매진하십시오.

김상환 _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C형,

지난 며칠 동안 서울 한 복판 광화문 근처는 넘쳐나는 촛불시위로 밤낮없이 복잡했었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시위 혹은 촛불행진으로 밝히는 것은, 어쩌면 직접민주주의라는 인류의 오랜 여망을 표출하는 행위로 보아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새 이명박정부가 집권하면서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와 진심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미관계와 청와대 팀을 짜고 내각의 국무위원들을 선발하여 책임을 맡기는 과정에서 능력만 내세운 나머지 부의 축적과정, 도덕적 관점,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 편파적 인재발탁, 대통령의 독주 등이 수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오고 밤을 지새우는 촛불시위로 이어져 나라가 어수선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광화문 한가운데에 사무실이 있고, 소위 고위직 공무를 맡아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일에 관계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시위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라밖의 여러 악재가 많지만 나라의 경제가 호전되고, 한미 FTA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하는 슬기로움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C형,

나는 지난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IFLA회장이며 독일 베를린국립도서관관장인 클라우디아 룩스박사의 초청을 받고 독일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룩스회장이 IFLA회장으로 지난해 남아프리카 더반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취임한 후, 독일정부의 Gohe Institute의 재정

지원을 받아 대륙별로 20~30명의 각국 도서관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어 세계 각국의 도서관문제 전반에 걸쳐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디지털 정보격차 : 디지털시대의 과학과 사회를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아시아 도서관계 인사들 20여명과 유럽 지도자 100여명이 함께 자리하여 진지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생산적인 모임이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하여 여장을 푼 후 다음날 하노버의 독일 국립과학기술도서관을 방문하여 독일 과학기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을 견학하고 상호 토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음날은 독일의 북쪽지방 너더작센주의 주도이며 엘베강과 북해에 면해 있는 항구도시인 독일 제2의 도시 함부르크로 이동하여 유명한 함부르크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선진화되고 잘 조직된 도서관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 차근차근 시행한다면 머지않아 선진적 독일 도서관의 수준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다시 베르린으로 귀환하여 독일 외무부 청사 강당에서 며칠간 세미나를 했고, 그 중 한 나절은 베르린국립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C형,

최신의 건축설계와 도서관기능에 맞는 완벽한 공간 배치와 분위기 때문에 우선 도서관입구에서부터, “그래 과연 독일의 선진 도서관의 모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초현대식 건물은 바로 길 건너에 독일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동지를 틀고 있는 음악당과 같은 건축가가 앙상블로 맞춰지은 건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C형, 내가 건물의 기능성과 아름다움, 우리를 압도하는 수백만의 장서와 자료들 때문에 기가 죽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부럽고도 기도 죽고 했다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안내데스크(Information Desk) 앞 가장 눈에 띄고 좋은 자리에 30여장의 명함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명함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Dr. Ulrike Hollender

Subject Specialist for Romance Language and Literature

Regine Beckmann

Subject Specialist for Art, Architecture, Theater, Dance, Cinema

Dr. Jens Prellwitz

Subject Specialist for Political Science, Military Science, World War History

Cornelia Kosmol
Subject Specialist for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General Science

Ivo Vogel
Subject Specialist for Law

Frank-Jurgen Vent
Subject Specialist for Biology, Medicine, Psychology

Sabine Teitge
Subject Specialist for Technology and Engineering, Environmental Science

Almust Ilsen
Subject Specialist for Chemistry, Physics, Astronomy

Dr. Oliver Berggötz
Subject Specialist for Classics

-
-
-

내가 명함 한 장씩 수거하면서 부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안내 사서가 하는 말이 나에게 샘플로 명함을 가져가시려면 더 안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 웃으면서 명함 수집을 멈췄는데, 이미 내 손안에는 25장의 명함이 들어있었던 것을 나중에 세어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베르린국립도서관이 모든 주제 분야의 정보조사제공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큰 일종의 공공도서관이었는데 주제전문사서가 30여명을 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부러움이고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 명함의 이름 밑에는 방번호와 전화번호, email주소 등이 상세히 적혀있어서 이용자가 언제든지 방문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전문도서관의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C형,

우리나라의 전문연구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그리고 국립도서관 등 국가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국민에게, 이용자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전문직사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길은 여기처럼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이들을 통한 정보서비스가 깊고 넓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특성화하여 주로 전문연구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사서양성을 위해서는 학부체제를 과감히 버리고 대학원 수준의 교육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위한 사서양성은 학부수준을 유지하되 그 도서관을 위한 선진적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특성화하는 사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ICT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과과정은 공통적으로 필수적이지만, 이렇게 도서관 관종별로 학과를 특성화 하여야만 21세기 지식정보 기반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전문직으로 사서라는 전문가를 이 사회가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C형,

나도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 경제 분야의 연구소인 국제경제연구원(KIEI) 정보실에서 사서로 5년간 일했습니다. 경제 경영, 국제정치, 지역학, 및 정책학 분야에 문외한이었던 나는 200여명이 넘는 석_박사 연구원들을 위하여 도서관책임자로서 매일 밤늦도록 이 분야의 책들을 가지고 가서 독파하면서 봉사하여할 주제 분야의 지식을 쌓느라 밤잠을 설쳤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용자 수준과 대등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을 때 우리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수호할 수 있다는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제도가 우리를 전문가로 키워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전문직을 발전시키고 수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C형,

우리 힘을 냅시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전문직이 진정으로 우리들이 봉직하는 모기관의 연구와 발전에 생산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결과로 내보일 수 있도록 정진하십시오. 그래서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이나 전문 연구도서관에서 활약하고 인정받는 전문직 사서로서의 위상을 획득할 수 있는 영광의 그날까지 매진하십시오.

끝으로 미래이나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선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 나라 도서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 C형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어 갑니다.

환절기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